

서 평 지

서평 제목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참가번호	2024-06
도서명	총, 균, 쇠	확인	기재하지 마세요

정보 홍수의 시대.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간다. 이것의 이점은 분명하다. 많은 추가 정보로 하여 자신이 가진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또 정보 간의 융합도 보다 용이해졌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 과연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적절히 수용/활용하고 있는가?’ 요즘 문제시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사례들만 보더라도, 정보라는 것은 생산자(또는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 또는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해지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경우를 보아도, ‘질’보단 ‘양’이 추구되는 경향이 우세인 듯하다. ‘질’을 따지자니 귀찮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타인에 뒤처질 것만 같기 때문에(FOMO). 그렇게 이런 게으름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편향적이고 왜소하도록 퇴보하고 있다. 역설적인 일이다. 세계 방방곡곡이 이어지는 초연결 시대에 되레 세계는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정보와 세계를 바라보는 정직한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총 균 쇠]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총 균 쇠]는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는가(현재까지는)에 천착하여 그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명분이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을 격파하며 세계의 패권은 특정 인종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환경·지리적 요건 등의 자연적 요인에 좌우되어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무기는 ‘과학적 사고’이다. 저자는 시종 고고학적, 지리학적, 언어학적, 생리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만 어떤 주제에 대하여 논한다. 물론 그 증거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개입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조차 팩트와 실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임의적이란 비판을 가하긴 힘들다. 우리는 이런 저자의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론과 결론에서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핵심 요인 두 가지와 함께 책에서 저자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며 현재 우리 사회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무어라 정의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기관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는 고정된다 생각한다. 의심과 집착이 그것이다. 의심의 경우 흔히 과학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이라 부르는 것으로, 나에게 온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문을 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책에서 의심과 관련해 가장 재밌고 노골적인 에피소드는 13장 ‘필요의 어머니’ 부분이다. 우린 보통 발명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대마다 소위 천재(天才)가 나타나 인류의 생활 및 사고를 뒤바꿀 획기적 물건을 창조한 것이라 여긴다. 제임스 와트, 토머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등 일부 천재가 단독적으로 행위한 결과가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믿음이다.

서평 제목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참가번호	2024-06
-------	------------	------	---------

그리고 이런 믿음은 획기적 천재들이 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많이 배출됐다는 생각, 그렇기에 특정 인종의 상대적 우월성을 통해 세계가 발전했다는 생각으로 비약되기 쉽다. 참 간편한 논리다. 뛰어난 사람들이 우연히(혹은 인종 간 필연적 차이로) 더 많이 나와서 특정 지역이 더 발전했다는 논리. 그러나 조금만 따져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발명품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예시가 크레타 섬의 파이스토스 원반이다. 이 물건의 경우, (추정 제작 연대가 맞는다면) 인쇄술의 아이디어를 가진 최초의 문서이면서도, 당시 섬의 과학 기술 및 정치 체제의 한계로 그 명맥이 끊겼다. 제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들 시대와 환경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묻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케이스다. 여기서 우린 발명이란 것이 획기적 천재보다 질 좋은 환경에 좌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천재가 던지는 아이디어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발명의 생존(인류에게 채택됨을 의미)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많은 발명가가 유라시아 대륙에 국한된 이유도 이와 같다. 인종 간에 차이가 있다면 선조들이 쌓아놓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는가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명한 논리를 따르지 못하고 비논리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세상엔 이 문제 말고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 문제에 신중한 잣대를 들이대기엔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인종 차이’로 설명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효율인가! 그러나 그 효율 뒤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시체와 피와 죽은 마음들이 즐비한다. 이러한 인종 논리가 20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인류를 움아맨 결과는 참혹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혹함 속에 성장한 후손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우리는 그 끔찍한 역사를 반복해야 하는가? 힘을 가진 자들의 정복 논리로 여겨진 그 치졸한 ‘인종 논리’를 이 시대에도 성행시켜야만 하는가? 그래선 안 된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최소한, 생각 없는 간편함에 취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 ‘의심’일 것이다. [총 균 쇠] 속 과학적 사고의 출발이 의심이었듯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속 악의 모습이 ‘무사유(無思惟)’였듯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태도만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다음으론 집착의 경우를 살펴보자. 과학적 사고는 끈질김에서 나온다. 계속 의심하고 비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과학적 사고는 강력한 집착을 요구한다. 이 책에서 집착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에필로그’이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본문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한 의문들을 해소해준다. 그중에서 대표 격으로 꼽을 만한 의문이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책을 읽으면서 어느 독자든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 유라시아 대륙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겠어. 근데 왜 유럽이 중동이나 아시아보다 잘 나가게 된 거지? 식량 생산이나 가축화는 중동에서 시작된 거잖아? 그리고 과학 기술도 중세까지는 중국이 선두 주자였고.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작용한 거야?’ 이 질문은 ‘집착’에서 비롯된 질문이다. 만약 우리가(저자를 포함해서) 그냥 그런대로 이 책에 만족했다라면 본문을 통해 이 책의 할 이야기는 다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정보/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동의 경우 유럽과의 기후 차이, 중국의 경우 통일국가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상기(上記)한 의문에 대답한다. 그리고 이런 의문에 대한 해소를 이 책에 담았다는 사실 자체로, 과학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선 의심과 더불어 강한 집착이 요구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심과 집착을 무기로 어떻게 현대 사회의 혼란에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평 제목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참가번호	2024-06
<p>서론에서 논의했듯,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의 ‘양’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정보 하나하나를 깊게 파헤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성듣성 처리하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편견이 태어나고, 편견은 혐오가 되고, 혐오는 행동이 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아프게 한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팬치는 누차 언급했듯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힘들더라도 정보 하나하나를 세심히 꼼꼼히 따지는 것.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만이 이 병든 사회에 대한 확실한 처방전이다. 그렇다면 드는 의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의 개선은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필자의 답은 ‘교육으로 가능하다’이다. 결국, 우리가 [총 균 쇠]라는 책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와 태도도 지식의 전수(거인의 어깨 위에서)를 통해 얻은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 안에서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지(What),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조합할지(How)에 대하여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디지털 교육이 성행하는 판국에 이 무슨 시대착오적 발언이나 꾸짖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다른 사안과 더불어 그 사고방식 자체를 의심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교육 체계의 근본부터 따져 보자. [총 균 쇠]가 1장(출발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을 통해 그러했듯.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목격하자. [총 균 쇠]는 제국주의 시대 혹은 그 전부터 이어진 우리의 민낯을 반성하고 질책하며 위로하는 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반성과 질책과 위로.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총 균 쇠]의 정신이 요구된다.</p>			